

## 스페인 프로축구와 지역민족주의 -아틀레틱 빌바오와 F.C.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임 호 준  
단독/서울대학교

Yim, Ho-Joon (2011), La cristalización y la evolución de los nacionalismos en el fútbol español: los casos del Athletic Bilbao y el F.C. Barcelona.

**Abstract** Muchos académicos están de acuerdo en el hecho de que, en España, el fútbol tiene mayor significación porque es mucho más que un deporte popular, puesto que ha posibilitado la cristalización de la identidad colectiva de sus diversos pueblos. En especial, en regiones o comunidades de arraigada tradición nacionalista, como las del País Vasco, Cataluña y Galicia, el fútbol contiene una profunda dimensión política y sus clubes de fútbol, como el Athletic Club de Bilbao (fundado en 1898) o el Futbol Club Barcelona (fundado en 1899), han actuado como símbolos de sus respectivos nacionalismos. Esta peculiaridad del fútbol español se explica, también, por su historia: primero, la fundación de los clubes vinculada al contexto socio-industrial de esas regiones y, luego, la represión franquista contra esos nacionalismos. Asimismo, es decisivo el modelo de gestión del club: de propiedad colectiva mediante un sistema de participación de los socios y una política de promoción de los jugadores de la cantera. En consecuencia, el nacionalismo involucrado en el fútbol español ha provocado un conflicto con la identidad nacional española. Sin embargo, el mayor cambio en el fútbol español ha sido causado por la globalización. Sobre todo, el libre fichaje de jugadores extranjeros y los grandes ingresos obtenidos de los derechos de retransmisión por TV han cambiado totalmente la situación del fútbol profesional. Así pues, la mayor parte de los clubes españoles de fútbol profesional se han visto obligados a transformarse en sociedades anónimas para obtener ventajas desde el punto de vista financiero y jurídico. No obstante, los cuatro clubes de mayor tradición de gestión con un sistema de socios (Real Madrid CF., FC. Barcelona, Athletic de Bilbao y Club Atlético Osasuna) han podido mantener el sistema actual de posesión colectiva. A pesar de ello, mientras que las dos primeras entidades han aprovechado la nueva coyuntura del mundo del deporte con mucho éxito

y se han convertido en los dos clubes con más ingresos del mundo, por su parte el Athletic de Bilbao está esforzándose por conservar su política de cantera. Sin duda, será interesante observar cómo el fútbol español, de marcada tradición nacionalista, evoluciona en un futuro más globalizado.

**Key words** fútbol español, FC Barcelona, Athletic Bilbao, nacionalismo en España, globalización  
 스페인 축구,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빌바오, 스페인의 민족주의, 지구화

## I. 들어가며

오늘날 스페인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스크 무장독립단체 ETA 문제를 포함하여 바스크, 까탈루냐, 갈리시아, 발렌시아, 발레아레스 제도 등에서 발전해 온 지역민족주의의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sup>1)</sup> 스페인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으로 남은 스페인 내전 역시 지역민족주의가 전쟁발발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회적 이슈에 지역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 까탈루냐에서 투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까탈루냐 의회에 의해 투우 금지법이 통과된 것 역시, 명목상으론 동물 학대와 전통 고수 사이의 갈등이 쟁점인 것 같지만 그 내부에는 카스티야 중심의 스페인 문화전통과 거리를 두려는 까탈루냐의 문화적 차별화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스페인의 프로축구는 스페인 지역민족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프로 스포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팀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는 지역주의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스페인처럼 프로축구가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고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민족주의로까지

1) 국가 차원의 민족주의 전통이 박약한 스페인에서 'Nacionalismo'는 지역의 민족주의를 지칭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바스크, 까탈루냐 등의 민족주의를 일컬어 '민족주의'라는 말 대신 굳이 '지역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민족주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발전된 국가에서 프로축구는 지역민족주의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sup> 실제로 스페인 프로축구에는 20세기 초 출범 이래로 정치·사회적 논리가 깊숙하게 개입하여 다른 유럽국가의 프로축구리그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이 펼쳐져 왔다. 많은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지역클럽에 대한 광적인 애정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지만 여기에 현실 정치의 함의가 덧씌워져 있는 것은 스페인 축구의 특이점이라고 지적한다.<sup>3)</sup> 이렇게 스페인에서 프로축구가 계층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지배하며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것은 프로축구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으로 기능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면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지역구단들은 ‘단순한 클럽을 넘어 Más que un club’ 라는 모토를 앞 다투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열성적 지원을 등에 업고 스페인 프로축구는 지구화 시대를 맞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축구 등과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는 엔터테인먼트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엘 클라시코 El clásico’ 라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간의 경기는 이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서 10억 명 이상이 TV중계를 시청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구단 간의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도 인구에 회자되고 스페인 축구에 얽힌 지역민족주의도 웬만한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가 됐다.

2) 스페인에서 프로축구가 누리는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만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인 지표로 보자면, 스페인 전체 GDP에서 프로축구가 직간접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효과는 1.7% 정도로 추산이 된다(Llopis Goig 2008, 56-63).

3) 예컨대 많은 지역구단들이 독립 또는 자치를 염원하는 지역 민족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프랑코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저항의식의 매개체가 되는 것 등이 정치적 함의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http://www.livesoccertv.com/news/2185/where-can-i-watch-el-clasico-live-fc-barcelona-vs-real-madrid-2010/>

그러나 스포츠 측면의 격앙된 라이벌 관계로 인해 스페인 사회의 지역민족주의는 그 양상이 과장되고 의미가 왜곡되거나 역사적 맥락이 피상적으로 알려진 경향이 있다. 그 동안 스페인 축구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역민족주의가 결부된 스페인 축구클럽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못했다. 이 글은 이러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스페인 지역민족주의와 프로축구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스페인 프로축구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지역 민족주의의 갈등과 전개 양상을 역사적·사회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지역민족주의와 정체성의 결정체로서 프로 축구클럽의 발전 요인

앞에서 말했다, 스페인 축구클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단순히 팬들의 애정을 모으는 스포츠 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정체성의 결정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프로 축구를 연구한 영국인 사회학자 볼은 “고향의 이름을 딴(스페인) 클럽은 그 지역의 영혼으로서 지역의 축제, 지역의 사람들 또는 지역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지역 공동체를 대표한다”라고 말한다(Ball 2011, 192). 이렇게 된 데에는 근대 이래 지역민족주의를 심화시킨 스페인의 역사적 상황이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역민족주의가 축구 클럽과 결부된 데는 클럽의 탄생이나 발전과정, 운영상의 독특함 그리고 스페인의 역사적 상황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자생적 창설과정

스페인에서 프로축구와 지역 민족주의가 결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구단의 창설과 초기의 발전과정이 그 지역의 정치·사회적 상

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프로구단들은, 우리나라처럼 프로축구의 리그 시스템이 생긴 후 그에 따라 지역 분배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단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바스크 지역에서 초기에 많은 축구구단들이 창단된 것은 19세기 바스크 지역 철강 산업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빌바오를 중심으로 한 바스크 지역의 철광 개발을 위해 영국 노동자들이 몰려왔고 이들에 의해 축구가 바스크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스크 출신의 자제들로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축구를 배워온 스페인 유학생들도 바스크 지역에 축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영국인 노동자, 스페인 유학생, 그리고 지역민들은 1898년 자신들의 구단인 아틀레틱 빌바오(Athletic Bilbao)를 창설했다.<sup>5)</sup> 그리고 곧 이어 1902년 이룬 풋볼 클럽(Irún Fútbol Club), 1908년 라싱 클럽 데 이룬(Racing Club de Irún), 1909년 레알 소시에닷(Real Sociedad), 1914년 아레나스 클럽 데 헤초(Arenas Club de Getxo) 등 많은 구단이 바스크 지역에서 창설되었다. 이러한 바스크 지역 팀들은 1929년 스페인 프로리그 라 리가(La Liga)의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sup>6)</sup> 첫 시즌 열 개의 참여 팀 중에서 다섯 개가 바스크 팀이었을 정도로 바스크는 초기 스페인 프로축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듯 초기 바스크 축구구단의 창설과 발전에는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환경이 밀접하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아틀레틱 구단의 승리는 지역 최대의 축제가 되었는데 아틀레틱 구단이 리그를 우승하거나 국왕컵을 차지하게 되면 빌바오의 산 안톤(San Antón) 성당에서 주교의 집전아래 특별 미사가 행해졌고 여기서 그들의 트

5) 아틀레틱 빌바오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창설된 축구구단이다. 첫 번째는 1889년에 창설된 레크레아티보 데 우엘바 Club Recreativo de Huelva 구단이다.

6) 스페인 리그의 창설을 처음 제안한 인물은 아레나스 클럽 데 헤초의 호세 마리아 아차(José María Acha) 회장으로서, 1927년 4월 그의 제안에 따라 스페인 리그 창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1929년 처음으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가 시작되었다.

로피는 빌바오시의 수호성인인 성모 베고냐(Virgen de Begoña)에게 바쳐졌다(Terrachet 1969, 6). 그리고 선수들은 바스크의 아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즌 종료와 함께 빌바오 예수회 대학에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MacClancy 1996, 186).

바르셀로나 구단의 창단 역시 지역의 산업적 발전과 관련이 깊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1899년 스위스 사업가 한스 캠페르(Hans Kamper)에 의해 창단되었는데 그는 이름을 까탈루냐어를 따라 조안 감페르(Joan Gamper)라고 개명했을 정도로 까탈루냐 민족주의에 동화된 인물이었다고 바르셀로나 구단이 까탈루냐 지역 정체성의 결정체로서 떠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구단의 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1908년부터 1925년까지 구단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까탈루냐 지역의 성공한 상공인들을 회원으로 불러 모았고, 구단을 까탈루냐 민족주의 운동과 연계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까탈루냐어 학교를 세우고, 구단 멤버들에게 까탈루냐어를 가르치고 스페인으로부터 까탈루냐의 독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Hamil *et al.* 2008, 478).<sup>7)</sup> 이렇듯 FC 바르셀로나의 창단에는 처음부터 지역주의가 결부되어 있었다.

## 2. 집단적 소유구조

스페인 프로축구가 지역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유구조에 있다. 알다시피 유럽축구계에서 대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영국의 주요구단들은 러시아, 미국, 아랍의 재벌에 매각되었고 이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럽무대에서 월등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창단 당시에는 시민회원들에 의해 집단 소유되던 구단들이, 운영에 유리한 일반회사의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에게 매각된 것이다.

반면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빌바오 등의 구단

7) 이러한 독립 캠페인으로 인해 1925년, 리베라 장군의 쿠데타 정권에 의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6개월 동안 활동금지를 당하기도 했다(Hamil *et al.* 2008, 478).

들은 클럽 회원들(socios)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래는 모든 구단들이 이러한 회원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0년 발효된 스페인 스포츠 법령은, 스페인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구단이 의무적으로 회사(Sociedad Anónima) 구조로 바꾸도록 규정했다(Ley del deporte, artículo 19). 집단 소유제로는 법적이고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령은 네 구단을 예외로 인정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빌바오, CA 오사수나 구단이다. 네 구단이 스포츠 클럽의 형태로 남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만큼 회원제의 전통이 뿌리 깊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회원 시스템을 지지하고 신봉하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현재 바르셀로나 구단은 17만 5천명의 회원(socio)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7%가 외국인이다(Hamil *et al.* 2010, 476).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내고 회장이하 운영진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sup>8)</sup> 아틀레틱 빌바오의 회원은 32,000 명에 달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구단에 더 투자할 수 없고 오로지 회원의 1년 회비만을 낼 수밖에 없다. 돈 많은 한 두 사람에게 의해 클럽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대부분의 회원이 원하기 때문이다. 구단의 운영을 위해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는데 바르셀로나 구단의 경우 대표단은 3,000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대표단은 회원 중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정해진다. 집단 소유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인데 이를 위해 구단은 모든 회원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보내 구단 운영을 보고하고 있다.

팬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스페인 클럽의 방식은 구단의 중대한 결정이 팬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일반회사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2년 동

8) 구단의 수입 확충을 위해 라보르타 회장은 회원을 매년 만여 명씩 늘렸다. 그래서 2002년 105,000 명이었던 회원이 이렇게 늘었다. FC 바르셀로나 구단의 경우, 2008년 성인 회원의 연회비는 175유로에 달했다.

안 바르셀로나 구단의 회장을 지낸 조셉 류이스 누네스(Josep Lluís Núñez)는 1990년대 후반, 바르셀로나 구단을 일반회사(Sociedad Anónima)로 바꾸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조안 라쁘르따(Joan Laporta)를 중심으로 ‘푸른 코끼리 L’ Elephant Blau’ 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누네스 회장을 탄핵하는 운동을 벌였다. 2003년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라쁘르따는 FC 바르셀로나 구단의 의미에 대해 “축구와 FC 바르셀로나는 많은 까팔루냐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다. 축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동족 정신이다. 이것이 없다면 축구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Hamil *et al* 2010, 497)<sup>9)</sup> 집단 소유체제를 바르셀로나 구단의 정체성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3. 선수 구성의 순혈주의

이것은 바스크 구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선수단을 그 지역 출신 선수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세계 축구클럽에서 아주 드문 경우다.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은 1919년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난, 바스크 혈통의 선수만이 구단 선수로 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했다.<sup>10)</sup> 레알 소시에닷(Real Sociedad) 구단 역시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선수자원을 한정했지만 바스크 혈통이 아닌 이민자의 자손도 허용함으로써 아틀레틱 구단에 비해서는 다소 문호를 넓혔다.

9)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팬들은, 외국 자본이 영국 클럽을 인수하고 모든 결정이 구단주 개인의 의사에 의해 내려지자 스페인의 소유모델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인 Gillett and Hick가(家)에 의해 인수된 영국 리버풀 구단의 팬들은, 개인으로부터 구단을 다시 인수하기 위해 7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http://edition.cnn.com/2009/SPORT/football/03/17/fan.ownership.club/>

10) 아틀레틱 구단의 폐쇄주의는 내부적으로는 바스크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외적으로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 중에는, 기본적으로 바스크의 순혈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스크 지역에는 19세기의 산업적인 발전으로 인해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로써 1900년대에 이미 80%의 거주민들이 이민자들이거나 이민자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다(Shafir 1995, 42-3).



선수들은 프로선수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인 만큼 구단은 그들에게 보통의 월급만을 지급했고 대신 남는 돈을 유소년 클럽에 투자하여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길러지도록 했다(MacClancy 1996, 184). 이로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은 선수들에게 동지애를 느끼며 아주 쉽게 클럽과 동일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에서 선수로 뛰었던 호세 마리아 에리세(José María Erice)는 그 당시 선수단의 분위기에 대해 “우리는 진정한 형제였다. 구단 회장과의 마찬가지로였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와 구단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라고 말했다(Athletic Club 1986, Vol I: 27). “지역 선수와 팬만으로 충분하다. 수입할 필요는 없다 Con cantera y afición no hace falta importación” 라는 구단 motto에서 드러나듯,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은 현재까지 순혈주의를 고수해오고 있다. 앞서 말했듯 바스크 지역은 일찍부터 축구가 발전했던 곳이라, 다른 지역의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어서 1950년대까지 리그를 여섯 번이나 제패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스페인 축구에서 외국 선수들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었고 1990년대부터 외국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영입되기 시작하자 바스크 구단들의 성적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레알 소시에다드 구단은 1989/90 시즌에 처음으로, 스페인 타지역 선수와 외국 선수를 스카웃했다. 팀의 핵심 선수는 바스크 출신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순혈주의의 포기과 다름없었다.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은 1996년 루이스 페르난데스(Luis Fernández)의 감독 취임과 함께, 구단의 선수로 뛰기 위해선 혈통과 관계없이 바스크 지역에서 축구를 배우기만 했으면 된다는 것으로 순혈주의를 수정했다.<sup>11)</sup> 그러나 이 조항은 바스크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지역 출신 선수들이나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sup>12)</sup> 순혈주의의 포기라

11) 바스크의 구단들은 유소년 클럽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타지역이나 외국에서도 많은 축구 유망주들이 유학을 오는데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 축구선수가 되었을 때 빌바오 구단에서 뛰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이다.

12) 순혈주의를 선언한 이후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에 외국인 선수가 뛰지 않은 것은 아

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팀들이 자유롭게 타 지역 또는 외국 선수들을 영입하는 상황에서 아틀레틱의 순혈주의는 성적의 부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바스크 사람들은 빌바오팀의 오랜 전통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1992년의 조사에서 빌바오팀의 회원들은 53%가 클럽을 일반회사의 행태로 바꾸는 것에 반대했고, 83%가 다른 지역 선수를 기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76%의 소시오가 다른 지역 선수를 기용하느니 차라리 팀이 2부 리그로 강등하는 것을 보겠다고 했다 (MacClancy 1996, 65).

무엇보다 구단의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는 바르셀로나 구단이나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선수단 구성의 순혈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지만 지역 선수들을 키우고 기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테면 2부 리그에 속해있는 바르셀로나 B구단이나 까스티야(Castilla) 구단은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지역 선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팬들 또한 성적에 연연하면서도 타지역 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바르셀로나 팀의 감독이었던 네덜란드인 루이스 반할(Louis Van Gaal)은, 세 시즌 동안 두 번이나 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음에도 팬들과 지역 언론은 그가 외국인 선수, 특히 네덜란드 선수들을 지나치게 많이 영입하여 바르셀로나팀의 까딸루냐 색채가 희석되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Burns 1999, 27).

바르셀로나의 팬들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도 까딸루냐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선수로 뛰었고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감독을 맡았던 네덜란드인 요한 크루이프(Johan Cruyff)가 바르셀로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다른 외국선수들과 달리 까딸루냐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화되는 행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에게도 바르셀로나 수호성인의 이름을 따서 조르디(Jordi)라

---

니다. 프랑스 국적의 대표선수 빅상트 리자라쥐(Bixente Lizarazu)가 1997년 시즌에 영입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바스크계이기 때문이다.

고 하는 까탈루냐식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까탈루냐에 애정을 보여줬고 이 덕분에 2009년부터 까탈루냐 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다.

#### 4. 프랑코의 지역민족주의 억압과 역효과

스페인 프로축구와 지역민족주의가 결부되게 된 네 번째의 요인은 역사적인 것이다.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지역민족주의를 분리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혹독하게 탄압했다. 그는 바스크어, 까탈루냐 등 지역어의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시키고 지역민족주의와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다. 지역 축구구단의 운영진을 모두 정권이 임명했고 구단의 명칭 또한 스페인어식으로 바꾸었는데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영어식 이름은 아틀레티코 데 빌바오(Atlético de Bilbao)로, F.C. Barcelona는 Barcelona Club de Fútbol로 바뀌었으며, 스포팅 히혼(Sporting Gijón)은 데포르티보 히혼(Deportivo Gijón)으로,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Atlético de Madrid)는 군대식으로 아틀레티코 비행단(Atlético Aviación)으로 개명되었다. 모든 선수들은 키오프 직전에 파시스트 찬가인 Cara al Sol 을 부르고 파시스트식으로 경례를 하며 'Arriba España! Viva Franco' 를 외쳐야 했다(Kassimeris 2008, 22). 축구 협회는 1943년, 국왕컵(Copa del Rey)을 총통컵(Copa del Generalísimo)으로 바꾸었다. 또한 유니폼에 바스크나 까탈루냐의 깃발 부착이 금지되었고 경기장에서도 지역깃발 사용이 금지되었다.

프랑코는 축구를 통해 스페인의 국가적 단합을 모색하고 국가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각 클럽의 운영진을 자신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일간지 기자의 관전평까지 점검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게 했다. 예를 들어 1950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스페인 대표 팀이 잉글랜드 대표 팀을 이겼을 때 언론들은 “스페인 축구사에 빛날 위대한 승리”로서 “영광스럽고(glorioso)”, “감격적이고(sensacional)”, “훌륭하고(magnífico)”, “영감적이다(inspirador)” 등의 수식어를 써가며 승리를 축하했다. 그리고 관중들은 “스페인! 스페인!을 연호했다”라고 보도했다. (ABC, 4 julio 1950, Liz

Crolley 2006, 103).

1950년대 후반 레알 마드리드의 빛나는 전과는 스페인의 국가적 승리로 이어졌다. 1957년 유럽 컵 결승에서 피오렌티나를 이긴 후 기자는 “우리는 최고라는 것을 입증해 왔고 지금도 우리는 최고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스페인 자체이다”라고 썼다(ABC, 31 mayo 1957). 레알 마드리드 구단을 ‘우리’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스페인 국민이 승리자임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중세의 십자군에 비유하며 “챔피언의 흰 셔츠를 입은 그들은 십자군이 갑옷을 입었을 때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패배가 눈앞에 왔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정신력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 세계를 제패해 온 비밀병기이다(ABC, 31 mayo 1957, Liz Crolley 2006, 106)”라고 기술했다. 프랑코 시대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지역의 팀이 아닌 국가적 팀이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많은 수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프랑코는 스페인 프로축구에 뿌리박힌 지역민족주의를 과소평가했다. 지역주의는 오히려 지역적 라이벌 의식을 강화시켰고 지역민들은 축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 프랑코의 총애를 받은 레알 마드리드는 중앙집권적인 유일문화를 추구하는 프랑코 정권 자체로 인식되어서, 지역의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할 때는 거기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sup>13)</sup> 그래서 FC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틱 빌바오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때는 특히 프랑코가 직접 경기를 관람했을 때는 기쁨이 배가되었고(MacClancy 1996, 192) 지역민들에게는 그 자체가 민족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Hamil *et al.* 2010, 478).<sup>14)</sup>

13) 내전 이전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공화국에 가까운 쪽이었다. 프랑코와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Santiago Bernabéu) 회장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었던 라파엘 산체스 게라(Rafael Sánchez Guerra)는 전쟁이 프랑코의 승리로 끝나자 망명을 떠났으며 부회장이었던 곤살로 아기레(Gonzalo Aguirre)와 재무담당 발레로 리베라(Valero Rivera)는 프랑코파에 의해 총살되었다.

14)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와 까탈루냐 지역 구단의 지역주의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쪽의

그 당시 거리에서 집회를 하거나 지역어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까탈루냐와 바스크인들에게 그들의 축구 경기장은 일종의 해방구였다. 대규모의 까탈루냐인, 바스크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그들의 언어로 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소시에다트 구단은 그들의 유니폼으로 붉은색-녹색-흰색의 바스크 상징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틀레틱의 팬들은 당시 중앙정부에 의해 금지된 바스크 깃발(Ikurriñas)을 흔들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은 금지된 바스크어를 배우기도 했다(Shaw 1987, 192). 1975년 9월, 프랑코 정권에 의해 체포된 5명의 ETA 요원들이 교수형에 처해지자 아틀레틱 선수들은 경기에서 검은 리본을 착용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주도한 골키퍼 이리바르(Iribar)는 스페인 국가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나 참여를 거부했다(MacClancy 1996, 193). 그는 1977년 유벤투스와의 유럽 컵 결승전 경기에서는, 팬들로 하여금 바스크 깃발을 흔들며 감옥에 갇힌 ETA 요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함성, 'Presoak kelerak!(죄수들을 거리로!)'을 외치도록 주도했다(Shaw 1987, 232-3).

프랑코 시대에 지역민족주의의 전통이 박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축구의 열기가 사그라졌다는 사실은 프로축구가 이 시기에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남부 세비야의 경우, 팬들이 줄어들어 레알 베티스(Real Betis) 구장은 군대차량의 주차장으로 전용되었고 세비야 구단의 시설물들은 프랑코의 지역 행정을 위해 사용되었다(Kassimeris 2008, 23). 이렇듯 프랑코의 지역민족주의에 대한 탄압은 역효과를 불러와 지역 축구클럽들의 정체성 강화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

오사수나(Osasuna) 구단과 까탈루냐의 에스파뇰(Español) 구단 -프랑코 시대에는 Sociedad española de Fútbol-을 지원했다. 이들 구단의 경우 지역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팬들과 국가적이고 통합적인 정체성을 선호하는 팬으로 나뉘인다. 프랑코 사망 후, 1979년 바스크 대표팀이 소집되었을 때 오사수나 구단이 선수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 III. 지역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갈등

축구 클럽들이 지역민족주의와 결부된 상황이 축구를 통한 스페인의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페인에서 1900년을 전후하여 지역구단의 창단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1915년부터 바스크와 까탈루냐는 지역의 선수들로 대표 팀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바스크 대표팀은 내전이 한창이던 1938년 쿠바와 경기를 갖기도 했다. 안달루시아도 1928년 자체적으로 대표 팀을 구성했고 1929년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 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다. 갈리시아도 1922년 대표팀을 결성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룬 것은 1920년 안트워프(Antwerp) 올림픽 경기에서였는데 벌써 1904년에 유럽 7개국 주도로 국제축구연맹이 창설되었고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13개국의 국가대표 팀이 참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스페인 대표팀이 1920년에야 처음 결성되었다는 것은 스페인 축구의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상당히 늦은 것이었다.<sup>15)</sup> 이것은 물론 머레이가 말하듯 “(스페인에서) 축구는 국가적 단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역적 분리주의의 승강장으로서는 기능했기” 때문이다(Murray 1996, 30).

스페인에서 국가 대표팀은 Equipo nacional 이라고 부르지 않고 Selección 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의미로서 여러 팀들에서 잘 하는 선수를 골랐다는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Selección 이라는 말은 바스크 팀, 까탈루냐 팀, 안달루시아 팀을 지칭할 때도 똑같이 쓰인다. 결국 스페인에서 국가대표팀(National Team)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낯설었고 1920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국가대표팀에서도 북쪽 지역 연맹(바스크, 아스투리아스, 까탈루냐)과 기쁘스꼬아 지역 연맹은 선수 차출을 거부했다

15) 덴마크 대표팀은 1896년, 프랑스 대표팀은 1900년에 이미 공식 경기를 한 기록이 있다(Murray 1996, 194).

(Crolley 2006, 98. 이 선수들은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의 스포츠 신문 「마드리드 스포츠 *Madrid Sport*」의 기자였던 페데리코 까로(Federico Caro)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사소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모든 사람은 조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올림픽에) 관광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에는 투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사들로서 참가하는 것이다(Crolley 2006, 98).”

하지만 스페인에서 축구는 이른 시기 바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발전했었기 때문에, 1920년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벨기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대표 팀이 국제무대에서 거둔 성적은 스페인 프로축구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것이어서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4강, 1964년 유럽 컵에서 우승한 것이 내세울만한 전과였다.

1975년 프랑코의 사망 이후 스페인에 민주주의가 도래하자 스페인 프로축구계에 지역민족주의의 바람이 다시 불게된 것은 당연했다.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까탈루냐의 민족주의는 부활했고 F.C. 바르셀로나는 그 중심에 있게 되었다. 1900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바스크나 프랑스 대표팀과 많은 경기를 가졌던 까탈루냐 대표팀은 1993년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겨울 시즌에 다른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가졌다. 1998년 불가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가졌으며 에콰도르(2003), 아르헨티나(2004), 브라질(2005) 등과 경기를 벌였다. 2004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 즈음해서는, 까탈루냐인들은 까탈루냐 대표팀을 국가대표팀으로 인정하여 국제 공식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Crolley 2006, 112).<sup>16)</sup> 바스크 역시 대표팀을 부활시켜, 1979년 아일랜드를 상대로 첫 국제 경기를 가

16) 실제로 세계 하키 연맹(IHF)은 2004년 까탈루냐 하키협회의 청원에 의해, 스페인 하키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까탈루냐 대표팀을 공식적인 국가 대표팀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투표를 벌였는데 114대 8 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이 안은 부결되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세계 올림픽 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Crolley 2006, 122).

졌다. 2007년에는 베네수엘라와 경기를 갖는 등 1979년 이후 모두 20경기를 치렀다.<sup>17)</sup> 안달루시아 대표팀 역시 1990년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와의 경기를 갖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친선경기를 개최했는데 2000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모로코(2000), 이라크(2001), 칠레(2002), 중국(2005) 등과 경기를 가져왔다. 갈리시아 대표 팀도 다시 부활하여 우루과이(2005), 에콰도르(2006), 카메룬(2007), 이란(2008) 등과 친선 경기를 가졌다.

이러한 지역 대표팀의 부활과 활발한 활동에서 보다시피 민주화 시대 이래로 스페인 축구에서 지역민족주의의 움직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04년 까탈루냐에서 Club Español de Football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FC 바르셀로나와는 다르게 친중양정부적인 행보를 보여 왔던 에스파뇰 구단은 1994년 RCD Espanyol (Reial Club Deportiu de Espanyol de Barcelona)라는 까탈루냐어 이름으로 개명하여 까탈루냐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 데포르티보 코루냐(Deportivo Coruña) 구단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를 떠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더 깊은 포르투갈 리그로 가겠다고 하기도 했다(Kassimeris 2008, 39).

스페인 대표팀은 스페인 국내에서 경기를 가질 경우 북부 도시를 기피하고 대개 남부 도시나 마드리드를 경기장으로 선택하는데 이곳에서 훨씬 많은 지지 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스페인 대표 팀이 국제무대에서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역민족주의로 인한 선수들 간의 불화를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스페인 대표팀이 2008년 유럽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잇달아 제패하자 이런 이유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스페인 축구 협회는, 국가대표의 경기에서 관중석에 지역의 깃발을 내걸거나 경기 후 경기장에 지역깃발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식 시상대에서는 스페인 국가 깃발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7) [http://en.wikipedia.org/wiki/Basque\\_national\\_football\\_team](http://en.wikipedia.org/wiki/Basque_national_football_team)



2008년 유럽컵, 2010년 월드컵 우승 당시 스페인 대표팀 주장 이케르 까시야스(Iker Casillas)는 아무런 깃발 없이 시상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8월 2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U-19 컵에서 스페인이 체코를 꺾고 우승을 했을 때 우승 트로피를 받으러 올라간 선수 중 한 명이 아스투리아스의 깃발을 들고 올라가려하자 감독이었던 암벨리아르 히네스 멜렌데스(Ginés Meléndez)는 이를 빼앗았고 이 행동이 논란이 됐다. 이에 히네스 멜렌데스 감독은, 선수가 협회의 규정을 잊은 것 같아 자신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Marca, 2 agosto 2011).

스페인에서 지역민족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국가 정체성과 마찰을 빚는 일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 팀끼리의 배타적 라이벌 관계가 심화될수록 국가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동화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20일 노 캄프(Nou Camp)에서 바르셀로나-마드리드의 경기가 열렸다. 이 경기 1주일 전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구장에서 스페인-잉글랜드 간의 친선 경기가 열렸었고 이 경기에서 스페인 관객들은 인종주의적 구호를 외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노 캄프에 운집한 바르셀로나의 팬들은 모자이크를 통해 “Ja som 125,000 (우리는 12만 5천명이다)”를 새겼고 거대한 현수막에 영어로 “We are not Spain” 이라고 걸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은 인종주의적인 스페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역주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이중적인 민족주의 정체성의 국가라는 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sup>18)</sup> 이러한 인식이 축구계에도 점차 확산되고 정착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례로, 2011년 8월 스페인 슈퍼컵(Supercopa) 결승전에서 FC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레알 마드리

18) 스페인 내에서 지역민족주의가 가장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스크의 경우에도, 2007년 바스크 대학사회정치학과 팀의 조사에서 지역민의 39%가 자치(autonomía)를, 30%가 독립(independentismo)을, 27%가 연방주의(federalismo)를 선호한다고 답함으로써 지역민의 70%가 독립보다는 약화된 형태의 분리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ttp://es.wikipedia.org/wiki/Nacionalismo\\_vasco](http://es.wikipedia.org/wiki/Nacionalismo_vasco))

드 선수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여 집단적인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유럽컵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 주장인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까시야스는 바르셀로나 구단의 대표팀 선수인 뿌올, 샤비와 함께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sup>19)</sup> 여기에는 최근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눈부신 전과를 올림으로써 대표팀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이 신장된 것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 IV.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축구 지역민족주의의 새로운 국면

1990년대 이래로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지구화의 물결은 유럽프로축구계에도 거세게 몰려왔고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구화는 축구 시장의 개방화를 불러와,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 축구 팬과 소비의 국경 없는 확산, 스타플레이어의 세계적 명사(名士)화, 팀 선수의 다국적화, 명문 구단의 초국적 기업화 등을 유발했다(Castillo 2008, 711).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금의 규모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 축구사회학자 줄리아노티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경이적인 규모의 자본이 완전히 새로운 원천에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위성과 유료시청 TV 네트워크,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초국적 스포츠용품 회사, 광고 회사, 클럽 자산의 판매를 통한 주요 주식시장이다.(Giulianotti 2002, 27)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법률적인 촉매 역할을 한 것은 1995년 겨울 EU 법원에 의해 판결된 이른바 보스만(Bosman) 룰이었다. 보스만 룰은 EU의 클럽들이 EU국가 출신의 선수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기용할 수 있는 길을 터

19) 까시야스는 전화를 걸어 양 팀 소속의 국가대표선수들이 저녁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레알 마드리드 감독 주제 무리뉴(Jose Mourinho)는 까시야스를 다음 경기에서 후보로 벤치에 앉혔고 저녁모임은 취소되었다(Marca 24 agosto 2011).

주었다. 또한 EU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한 모든 선수들이 EU 국가 출신 선수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유럽식민지 국가 출신 선수들이 EU 국가의 클럽에 대거 영입될 수 있게 해 주었다.<sup>20)</sup> 보스만 룰이 적용되기 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외국인 선수 비율은 14.5%에 불과했으나 보스만룰 적용 직후 1998년 38.5%로 올라가더니 2003년에는 45%까지 상승했다(King 2003, 92).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경우 보스만 룰이 적용되기 직전인 1995/6 시즌 외국인 선수의 비율은 37% 였으나 2007/8 시즌엔 63%가 외국인 선수로 채워졌다(Daily Mail, March 28, 2008).

100년 가까이 지역 민족주의의 정체성으로서 기능해 온 스페인의 지역 구단들에게 지구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2003년 라포르타(Joan Laporta)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르셀로나 구단은 확장된 수입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자신들의 유소년 클럽을 통해 육성한 지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한편 거금을 들여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였다. 2003년 호나우지뉴, 2004년 사무엘 에토 등을 영입하여 2004/5, 2005/6 시즌, 연이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를 제패했고 2005/6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다. 구단의 회원(Socio)은 2003년 10만 명에서 2010년 17만 5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50%는 외국인 또는 스페인의 다른 지역 거주민이다.<sup>21)</sup>

바르셀로나의 세계 브랜드화 전략은 국제 사회에 대한 기부로도 이어졌는데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수입의 0.7%를 기부하기로 했고 UNICEF에 대한 후원으로서 유니폼에 UNICEF 로고를 부착하는 것과 함께 5년 동안 매년

20) 사실 벨기에 축구선수 보스만이 EU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진행된 이 판결의 핵심은 팀과의 계약이 끝난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이 이적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EU 내에서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차적인 판결이었는데 오히려 이 판결이 유럽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온 것이었다.

21) <http://www.fcbarcelona.com/web/castellano/noticies/club/temporada09-10/04/13/n10041311040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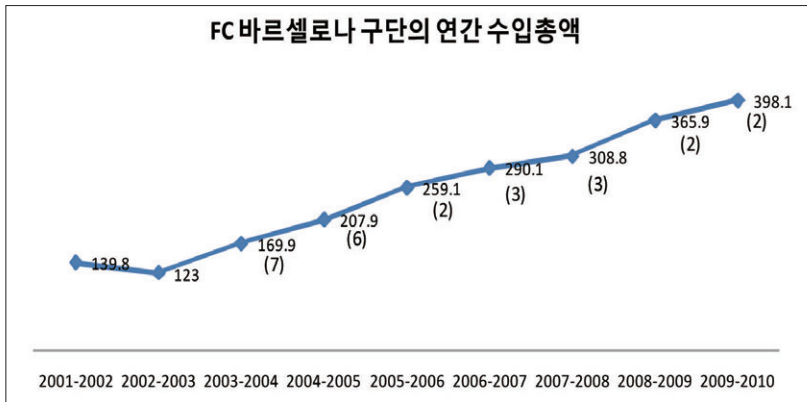
150만 유로를 기부하기로 했다.<sup>22)</sup>

이러한 세계 브랜드화는 경제적인 효과를 낳았는데 홈 경기 중계권 협상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에 성공하여 1999년 6월 스페인 텔레포니카와 무려 4억 달러의 금액으로 2003-2008년 5년 중계권에 합의했다(Ascari and Gagnepain 2006, 80). 그리고 나이키사의 로고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는 조건으로 5년 동안 1억 5천만 유로를 받는 계약에도 성공했다(Nili 2009, 262).

그러나 FC 바르셀로나가 까탈루냐 정체성을 버리고 세계화의 전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라쁘르따 회장은 2003년 회장 선거에서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뛰기 위해선 외국선수들이 까탈루냐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을 계약 사항에 넣기로 결정했다(Nili 2009, 265). 또한 까탈루냐 정체성 수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2007년, 빅리그 감독 경험이 없는 조셉 과르디올라(Josep Guardiola)를 감독으로 선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과르디올라는 1992년 바르셀로나 구단이 처음으로 유럽컵에서 우승했을 때 선수로 뛰었던 인물로서 까탈루냐 출신일 뿐 아니라 그 동안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까탈루냐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었다. 과르디올라는 호나우지뉴, 에토를 다른 팀에 넘기고 샤페, 이니에스타, 메시 등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였다. 그리고 2008/9 시즌에는 빠리메라리가, 국왕 컵,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여 삼관왕을 달성했고 2009/10, 2010/11 시즌에도 빠리메라 리가를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물리치고 챔피언스 리그를 네 번째 차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01/2년 시즌 총수입 면에서 1억 3천 9백만 유로를 기록하며 유럽 구단들 중에서 9위에 머물러 있던 바르셀로나는 지구화 시대의 변화된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아래의 표에서 보듯 성공적으로 수입액을 늘려갔고 2009/10 시즌 3억 9천 8백만 유로의 수입을 올려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유럽의 모든

22) [http://www.fcbarcelona.com/web/english/club/club\\_avui/mes\\_que\\_unclub/mesqueunclub.html](http://www.fcbarcelona.com/web/english/club/club_avui/mes_que_unclub/mesqueunclub.html)



단위: 백만 유로. 괄호 안은 유럽 전체 클럽 중의 순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eloitte\\_Football\\_Money\\_League](http://en.wikipedia.org/wiki/Deloitte_Football_Money_League)

구단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sup>23)</sup> 스페인 축구리그의 많은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세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렌시아, 데포르티보 꼬루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등의 구단들은 자금이 허용하는 한에서 외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만큼은 전통적인 순혈주의의 유지를 선언하며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1994년 아틀레틱 구단의 회장으로 임명된 호세 마리아 아르타타(José María Artata)는 취임사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폐쇄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축구 클럽 이상이자 하나의 정신이기 때문에 구단의 운영방식은 종종 합리적 분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계 축구에서 독특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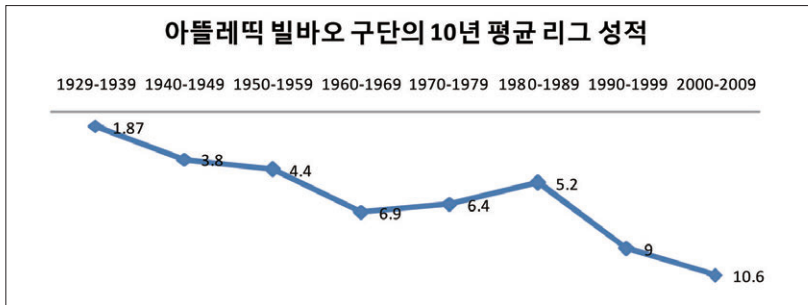
23) [http://en.wikipedia.org/wiki/Deloitte\\_Football\\_Money\\_League#Comparative\\_table\\_of\\_revenue\\_.28and\\_ranking.29](http://en.wikipedia.org/wiki/Deloitte_Football_Money_League#Comparative_table_of_revenue_.28and_ranking.29).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유럽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두 구단으로 군림하게 된 데는 스페인 프로리그의 TV 중계료 중 4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TV 중계료를 제외한다면 스페인의 두 구단의 총 수입은 TV 중계료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등의 수입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다.

정의한다. 우리는 다른 구단들보다 낮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다. 우리는 우리 땅의 자손들이 우리 클럽을 대표하길 바라고 그럼으로써 비즈니스 개념이 아니라 스포츠 연합체를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선수들이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형성되길 바라는데 우리 땅에서 자란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선수들과 구단 창설자들의 이데올로기와 화합하여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고 느낀다.(Ball 2003, 83)

거대 자본의 논리가 재편해 놓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빌바오 구단이 취한 전략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검약주의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도 빌바오의 선수들은 스페인 다른 팀 선수들의 1/4에 불과한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 50여 명의 바스크 선수들이 바스크를 떠나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Nili 2009, 263).

이런 상황에서 1998년 아틀레틱이 2위로 리그를 마감하자 빌바오 시민들은 열광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를 메웠으며 바스크 신문들은 “돈 많은 자가 이긴다는 설이 과학적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계량되지 않는 요소들, 즉 팀의 힘, 정체성, 정신과 열정이 아직까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보도했다(MacClancy 1996, 66).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아틀레틱의 성적은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5/6, 2006/7 시즌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마음을 졸인 끝에 17위를 차지하며 가카스로 2부 리그 강등을 모면했다. 구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2부 리그 강등이 시간문제로 다가오자 선수의 순혈주의 전통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 아틀레틱의 팬들 사이에서 다시 불거졌다. 여전히 다수의 팬들은 전통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2부 리그에서 뛰는 것을 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Castillo 2008, 718).

순혈주의는 고수하기로 했지만 재정적 위기 앞에서 아틀레틱 구단은 2008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의 유니폼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3년 동안 6백만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바스크 석유회사 Petronor와 계약했다. 여기에 대해 팬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구단은 바스크 회사들만이 스폰서가 될 수 있다고 뜻을 박았다(Nili 2009, 265).



출처: 구단 홈페이지(www.athletic-club.net)의 자료를 토대로 편집

2004년 빌바오 구단은 UEFA 컵 출전을 앞두고 유명 디자이너인 다리오 우르사이(Dario Urzay)에 의뢰하여 전통적인 붉은 색 흰 색 세로 줄의 유니폼을 흰색 바탕에 붉은 색 원형 모양이 새겨진 유니폼으로 변경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2005년 스페인의 그래픽 아트상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나 아틀레틱의 팬들은 전통 디자인을 수정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새롭게 선출된 페르난도 라미키즈(Fernando Lamikiz) 회장은 새로운 디자인의 유니폼은 어웨이 경기에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홈 경기에선 전통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도록 했다(Castillo 2008, 715).

세계화 시대 바스크 구단의 문제는 한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폐쇄적인 구단이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빌바오의 유력지(紙)인 「엘 꼬레오 *El correo*」가 빌바오 팀의 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팬들이 여전히 구단의 철학을 지지했지만 적지 않은 수가 구단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의견을 보인 팬들은 몇년 전 「엘 문도 *El mundo*」지의 조사 때 수치인 24% 보다 늘어났다(Castillo 2008, 718). 구단정책의 철회를 주장한 팬들은 1) 현재 축구세계의 경쟁적 관점에서 순혈주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고 2) 유럽과 세계 축구무대에 출전하기 위해선 좋은 성적이 필요하며 3) 저 출산과 다른 바스크팀들의 경쟁 추세로 충분한 바스크 선수들을 확보하기 어렵고 4) 이 정책이 현재 바스크

사회의 복수성과 새로운 전지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구단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1) 나쁜 성적은 구단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결과이고 2) 밖에서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이 더 나은 성적을 가져 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3) 구단의 정책은 빌바오 구단을 독특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에 관계없이 팬들의 충성심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Castillo 2008, 718).

## VI. 나가면서

오늘날 세계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군림하고 있는 축구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지역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 특별히 지역민족주의의 전통이 뿌리 깊은 스페인에서 축구는 극심한 사회적 변화의 국면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충돌과 협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양상을 표출해 왔다.

시의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최근의 양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화가 가져온 변화된 환경은 스페인의 모든 구단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지역정체성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지구화의 개방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환경에 대처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국가 전체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스페인 구단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화의 변화된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구단으로 보인다. 두 구단은 회원소유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구단으로서 지역 정체성의 확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단의 수입을 늘리고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총수입 면에서 세계 1, 2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군림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TV 중계료



분배 협상에서 빠리메라 리가 전체 중계료의 46.5%를 두 구단이 가져갈 만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팀들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틀레틱 빌바오가 채택하고 있는, 선수단의 순혈주의는 상당히 특이하다. 지구화의 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바오 구단의 순혈주의에 대한 고수가 빌바오 시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공업중심 도시로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빌바오는 1980년대 말부터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여 서비스 산업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광산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조물과 공업용 항만시설을 걷어내고 유명 건축가들을 동원하여 경전철, 공항, 다리 등을 건설하였다. 1997년 프랑크 게리(Frank Gehry)의 포스트모던 건축물인 구겐하임 박물관이 완공되어 문을 열었고 이 박물관은 빌바오시를 일약 초국적 도시로 만들었다. 이로써 빌바오는 한 해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활력 있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빌바오 구단의 순혈주의 역시 폐쇄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통의 고수라는 점에서 빌바오 시민들의 지역적 자긍심의 보루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틀레틱 빌바오 구단이 근대 이래 핍박의 역사로 점철된 바스크인들의 삶과 동일시되며 100년 이상 바스크 정체성의 결정체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빌바오 구단의 상징적인 전통을 허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아틀레틱 빌바오의 팬들이 성적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모든 종류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구화가 진행될수록 지역적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축구구단의 기능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지구적으로 중계되는 TV 네트워크를 통해 축구구단은 지역을 초월한 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 많은 구단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 다만 민족주의라고 불릴 만큼 지역주의의 뿌리가 깊은 스페인에서 축구가 지역정체성을 대표해 온 오랜 전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될 것인지 앞으로의 양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줄리아노티/리처드(2004), 『축구의 사회학: 지구를 정복한 축구공, 지구를 말하다』, 복진선 옮김, 현실문화연구.
- Ascari, Guido and Philippe Gagnepain(2006), “Spanish Football,” *Journal of Sports Economics*. Vol.7. No. 1. 2006.
- Athletic Club Bilbao(1986), *Historia del Athletic Club Bilbao*, 6 vols. Bilbao: Athletic Club.
- Ball, Phill(2011), *Morbo: the Story of Spanish Football*, London: When Saturday comes book.
- Burns, J.(1999), *Barca: a people's passion*. London: Bloombury.
- Castillo, Juan Carlos(2008), “The other Basque subversives: Athletic de Bilbao vs. the new age of soccer,” *Sport in Society*. Vol. 11, No. 6, November, pp. 711-721.
- Crolley, Liz and David Hand(2006), *Football and European Identity: Historical Narratives through the press*, New York: Routledge.
- Giulianotti, Richard(2002), “Supporters, Followers, Fans and Flaneurs: A Taxonomy of Spectator Identities in Football,”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Vol. 26, No.25, pp.25-46.
- González Gómez, Francisco and Andrés Picazo Tadeo(2010), “Can we be satisfied with our football team? Evidence from Spanish professional football,” *Journal of Sports Economics*, 11(4), pp. 418-442.
- Hamil, Sean, Geoff Walters and Lee Watson(2010), “The model of governance at FC Barcelona: balancing member democracy, commercial strateg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porting performance,” *Soccer & Society*, Vol 11, No. 4, pp. 475-504.
- Kassimeris, Christos(2008), *European Football in Black and White*, New York: Lexington Books.
- King, Anthony(2003), *The European Ritual: Football in the New Europe*, Burlington: Ashgate.
- Llopis Goig, Ramón(2008), “Identity, nation-state and football in Spain. The evolution of nationalist feelings in Spanish football,” *Soccer and Society*,

- Vol. 9, No. 1, pp. 56-63.
- MacClancy, Jeremy(1996), "Nationalism at Play: The Basques of Vizcaya and Athletic Club de Bilbao," in MacClancy ed.(1996), *Sports, Identity and Ethnicity*, Oxford: Berg.
- Nili (Shumulik), Shmuel(2009), "The Rules of the Game-Nationalism, Globalisation and football in Spain: Barca and Bilbao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lobal Society*, Vol. 23, No. 3, pp. 245-268.
- Murray, Bill(1996), *The World's Game: A History of Socc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afir, Gershon(1995), *Immigrants and Nationalists: Ethnic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Catalonia, the Basque Country, Latvia and Estoni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aw, Duncan(1987), *Fútbol y Franquismo*, Madrid: Alianza.
- Terrachet, Enrique(1969), *Historia del Athletic de Bilbao*, Bilbao: La Gran Enciclopedia Vasca.

## 임 호 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hojoon33@snu.ac.kr

논문투고일: 2011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4일